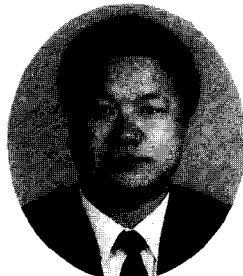




기획시리즈



최명섭 / 임업연구원

산딸나무

과명 : 층층나무과

학명 : *Cornus kousa*

영명 : Korean Dogwood

한명 : 四照花

일명 : ゆまぼう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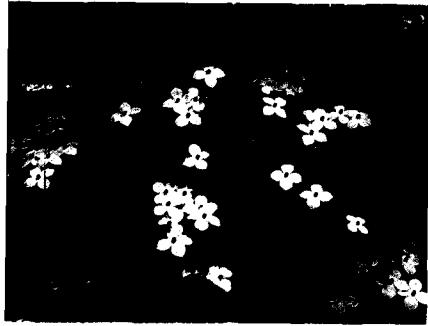
▶ 산딸나무
전경



▼
산딸나무
열매

외국에서 홀륭한 정원수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종도 우리나라에서는 잡목(雜木)취급을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우리나라 중부 이남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딸나무가 바로 그것. 이름없는 잡목취급을 받아 이 나무를 아는 사람조차 드문 실정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국가원수나 저명인사들이 기념식수를 할 때 이 나무를 즐겨 선택하며(Dog Wood)라 하여 집에서 기르는 애견처럼 사랑하고 아낀다. 특히 하얀 꽃잎이 +자형으로 갈라져 마치 십자가를 연상시킬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못박혔다고 하여 기독교인들은 성스럽게 받들고 있기도 하다. 이 나무는 너무 단단하여 박달나무, 쇠박달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딸나무 꽃

1. 생태적 특성

중부 이남의 산야에서 자생하는 낙엽활엽 큰키나무로 수고 12m, 직경 50cm에 달하고 수직적으로 제주도 한라산에서 표고 1,800m까지 자라며 대부분은 표고 300~500m에서 분포한다. 가지가 수평으로 퍼지고 수피는 껍질이 벗겨져 모과나무 수피와 같고 매끈하며 아름답다.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고 음지에서도 잘 견디며 토심이 깊고 적유한 토양과 비옥한 곳에서 생장이 좋다. 각종 공해에는 잘 견디나 건조한 곳에서는 생장이 불량하다.

2 형태적 특성

잎은 마주 나며 계란형이고 끝 부분은 점점 좁아지고 아래부분은 예리하다. 길이는 5~12cm, 넓이 3~7cm이다. 잎 뒷면은 회녹색으로 까실까실한 털이 빽빽하고 엽맥의 겨드랑이에 갈색 털이 많이나 있다. 꽃은 전년에 자란 가지 끝에서 6월에 흰색으로 피며 백색포(白色苞)는 사방으로 펴져서 나무 전체가 하얗게 뒤덮인 것 같아 보인다. 열매는 9~10월에

딸기 모양의 진분홍색으로 익고 직경 1.5~2.5cm로 단맛이 있어 새와 짐승이 매우 좋아한다. 경기도 광릉지역에 자라는 산딸나무는 꽃잎이 커 준산딸나무라 하고 제주도에 자생하는 것은 꽃잎이 좁아서 소리딸나무라고 부른다.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높이 12m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우선 수형이 우산모양으로 미려하고 모과나무같은 줄기가 철따라 벗겨져서 관상가치를 다양하게 높여준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산철쭉에 이어 수수꽃다리나무의 꽃이 질무렵이면 어느덧 화사한 봄은 가고 초여름에 접어드는데 이 때부터 산딸나무가 눈같이 하얀 꽃을 송이송이 피어 올려 6월을 환하게 한다.

전년에 자란 가지끝에 옹기종기 생긴 꽃눈이 5월로 접어들면서 부풀기 시작, 6월 중순이 되면 꽃을 싸고 있는 포(苞)가 하얗게 펴져 흰나비가 떼지어 가지에 앉은 듯 나무전체를 뒤덮는 것이다. 꽃도 청순하게 아름답지만 꽃을 보호하는 포가 새하얗게 먼저 피어 관상효과를 더 높여 준다. 4월의 여왕 목련이 호화롭고 화려하다면 산딸나무의 꽃은 청순하고 고귀한 멋을 풍긴다고 할 수 있다. 딸기처럼 빨갛게 익는 열매는 직경 1.5~2.5cm. 그 안에 여러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열매가 익을 무렵 불타오르듯 빨갛게 물드는 단풍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관상거리

다. 잔뿌리가 많아 옮겨 심어도 이식력이 강해 잘 자라며 병충해가 거의 없어 정원수는 물론 공원수, 가로수로도 훌륭하다.

4. 번식법

종자와 삽목 두가지가 다 가능하나 많은 묘목을 얻으려면 종자로 하는 것이 좋다. 9~10월에 채취한 열매를 습기가 있는 곳에 2~3일 부숙시켰다가 과육을 벗겨내고 얇은 종자를 건조시키지 말고 젖은 모래와 섞어 보관하였다가 12월중 노천매장한 후 이른 봄에 파종한다. 씨를 건조시키면 발아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관시 젖은 모래와 섞어 5C에 보관해야 한다. 산딸나무의 씨는 1~2년 걸려 싹트는 것도 있으므로 파종상은 마르지 않게 관리해야 완전 후숙이 이루어진다. 또 발아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싹이 트다가도 시들어 버리므로 주의를 요한다.

5. 그 밖의 용도

목재는 재질이 단단하고 굳으며 무늬가 좋고 나이테가 치밀하여 조각재, 기구재로 이용하며 가을에 먹음직스럽게 익는 새빨간 딸기모양의 열매는 감미로워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 도입된 꽃색같이 분홍색인 것을 꽃산딸나무 또는 미국산딸나무라하는데 이 나무는 추위에 견디는 힘, 건조에 견디는 힘이 약해 중부이북 지역에서는 자라지 않는다.